

선조와의 만남

한 여름 일본열도를 더 뜨겁게 달구는 일본 최대의 명절이 바로 오봉(お盆)이며, 거의 모든 기업들이 휴무에 들어가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던 사람들은 귀성길에 오름

□ 오봉이란?

- 오봉은 우라봉에(盂蘭盆会)를 줄인 말로 선조의 영혼을 현세로 모셔왔다가 다시 저승으로 모셔다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날임
- 대부분의 지방에서 8월 13일에서 16일까지의 4일간을 오봉으로 여기고 있으나 지방특색에 따라서는 7월 한 달 내내 또는 양력 7월 15일 전후로 행사를 치르기도 함
- 오봉은 선조 혹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영혼이 빛을 쫓아 돌아온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선조의 혼을 맞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보통 10여 일간 주어지는 오봉야스미(お盆休み, 오봉휴가)를 이용해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는 물론 신칸센(新幹線)은 임시열차를 만들어 사토가에리(里帰り, 고향방문)하는 귀성인파를 분산시킴

□ 의식의 순서

- 13일(お盆の入り) 저녁 무렵 부츠단(仏壇, 불단) 혹은 오봉 때만

임시로 만드는 정령(精霊, 죽은 자의 영혼)을 모시기 위한 쇼료다나(精霊だな) 혹은 봉다나(盆だな)라 불리는 선반 앞에 초롱을 놓고 정원이나 문 앞에 껌질을 벗긴 삼대를 태웁니다

- 초롱과 이 불빛을 무카에비(迎え火)라고 하며 조상의 혼백에게 돌아올 집의 위치를 알려 줍니다
- 선조의 묘가 집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묘 앞에서 초롱을 들고 집까지 안내하는데 오봉은 이렇게 정령을 집으로 모셔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

* 최근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집에까지 들고 오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

○ 14일과 15일은 정령이 집에 머무는 기간으로 불단이나 봉다나에 음식을 공양합니다

- 우리나라의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는 것과 비슷하지만 정성스럽게 손수 만드는 대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
- 특히나 놓아두어도 상하지 않는 음식이 대부분으로 오봉이 시작되는 13일 전에 백화점과 주택가 슈퍼마켓에는 봉다나에 올릴 물건을 파는 특별 매장이 설치됩니다

○ 16일(お盆の明け)저녁에 정령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

- 무카에비와 같은 위치에서 이번에는 오후리비(送り火)를 피우고 돌아가는 길을 밝혀 영혼을 되돌려 보냅니다
- 요즘은 모든 가정에서 불을 밝히지는 않으며 주위의 큰 사찰과 신사에 커다란 불을 밝혀 모든 정령의 돌아가는 길을 안내합니다
- 이러한 광경을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이 모이기도 하고 주요 장면은 TV로 방영되기도 합니다

□ 니이봉(新盆)

- 고인의 49제를 지내고 처음으로 맞는 오봉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를 니이봉(新盆) 또는 하츠봉(初盆)이라고 함
- 이날은 일가친척과 주위 사람을 부르고 친분이 있는 절에 부탁하여 스님이 직접 와서 선조들을 위해 염불을 하기도 함
- 이를 도쿄우(読経, 독경)라고 하며 봉다나에는 아침, 점심, 저녁 하루 3번 가족과 똑같은 식사를 공양하는데 이를 료구젠(靈供膳)이라 함

□ 봉오도리(盆踊り)

- 오봉 행사가 집 안에서 혹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주로 마을단위로 행사가 준비되고 행해지는 것이 봉오도리(盆踊り)라는 춤임
- 주로 사찰과 신사 앞 뜰 혹은 마을 공터에서 춤을 추며 봉오도리의 유래는 식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
- 오봉을 통한 공양으로 성불했을 망자들이 환희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과 오봉에 돌아온 정령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음
- * 어떤 유래를 적용하든지 선조들의 정령을 위해 춤추는 것임에는 틀림없음
- 지금은 망자를 위한 춤이라는 원래의 의미와 더불어 살아있는 자들의 즐거움의 하나가 되어 같이 즐기는 마을 축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
- 봉오도리는 다른 어떤 행사와는 달리 종교적 의식이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한마당

을 연출하는 오락적 의미가 강해지고 있음

- 지역에 따라서는 남녀 간의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구혼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함
- 오봉은 선조의 정령을 편안하게 모셔와 맘껏 드시게 하고 춤을 추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다시 편안하게 가는 길에 불을 밝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함
- 일본에서는 이렇듯 지금의 자신들을 있게 한 조상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후손들에게 그 전통과 각종 행사의 정성어린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봉이 이어져가고 있음